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축산농가 사료 구매 정책자금 40억 지원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336농가에 40억원 규모의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에 209억원을 배정했고, 지난 11일에는 105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지원 조건은 전액 용지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이다. 선정된 농가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정 추천 통보서와 상세내역을 발급받은 뒤, 오는 9월 18일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기한 내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융자금에 회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료구매 정책자금은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사료비 비중이 높아진 만큼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소방서, 비 온 뒤 기온 상승 시 벌쏘임 주의 당부

고창소방서는 장마철 비가 그친 뒤 기온이 오르면 벌 활동량과 공격성이 급격히 증가해 벌쏘임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고창 관내에서는 벌집 제거 요청과 벌쏘임 환자 이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환자는 전신 두드러기나 호흡 곤란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했다.

벌쏘임을 예방하려면 △야외 활동 시 밝은색 의류 착용 △향수·스프레이 사용 자제 △벌집 발견 시 직접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벌침을 신속히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차갑게 냉찜질하며, 호흡 곤란·어지럼증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났을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비가 그친 뒤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벌의 공격성이 높아진다”며 안전사고를 막아달라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모든 체형 영상진단’ 시범사업 추진

정읍시농기센터, AI·ICT 활용 가능 축산 경영체 2곳 대상... 축산 스마트화 가속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AI와 ICT를 활용한 ‘모든 체형 영상진단 기반 정밀 영양공급 기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축산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나섰다.

이번 시범사업은 모든 30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재귀발정률과 번식성적 등 생산 지표를 정밀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 가능한 축산 경영체 2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술은 모든의 등지방 두께를 비접촉 방식으로 자동 측정한다. AI로 분석해 맞춤형 사료를 자동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료 낭비를 줄이고 비만이나 영양 부족과 같은 생산성 저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도입되는 임신돈 정밀 사료급여기(100스톨)는 개체별 영양 상태를 분석해 사료량을 자동 조정한다.

실증 농가인 송영철 씨는 “그동안 등지방을 수동으로 측정하고 사료량을 조절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었지만, 3D 스캐너와 AI 분석 시스템 도입 후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타 농장 적용 사례에서는 농가 소득

3.96% 증가, 사육 비용 4.39% 절감, 모돈당 연간 이유두수(PSY) 1.3두 증가, 사료효율(FCR) 0.1 개선 등 성과가 확인됐다. 시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이보다 높은 성과가 나오는지 분석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의 노동력 문제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도입 사례”라며 “정밀 축산 기술 보급을 확대해 정읍시 축산업의 현대화와 스마트팜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역사·전통 정읍 지황, 국가중요농업유산 현장 심사 진행

웅동면 전통생물문화관·지황 품종 전시포 등서 자문위원·재배농가·관계자 등 30여명 참석

조선시대부터 임금께 진상되던 약재 정읍지황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웅동면 전통생물문화관과 지황 품종 전시포 등서 진행됐다. 조사에는 자문위원을 비롯해 재배농가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읍지황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돼 있을 만큼 역사적 가치가 크다. 지황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 농가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현재까지 웅동·태인·칠보면 등에서 주로 재배



되고 있다.

시는 1992년 지황 주산지로 지정됐고, 2015년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했다. 또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정읍지황 농촌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명성 회복에 힘써왔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고려지황을 포함한 11종의 품종과 전통 재배법, 숙지황 가공 방식 등이 소개됐다. 이를 통해 역사성, 전통 농업문화, 특별한 경관 등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줬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청자박물관·상명대, 청년 도예가 육성 업무협약 체결

청년 도예 인재 양성·도자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부안청자박물관(부안군수 권익현)은 12일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학장 유동관)과 청자 상감기법 전승 및 실무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도예 인재 유치와 전문 도예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유동관 디자인대학 학장 및 세라믹디자인과 홍영중 학과장 송준규 교수 등 상명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상명대학교는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를 개설, 세라믹디자인과는 1988년 3월에 신설된 국내대학으로는 유일한 산업도자기의 디자인개발과 연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학 협력을 연구를 통하여 기술과 경험축적, 양산화 적용능력을 스튜디오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도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 도자산업 육성, 지역 청자 문화 자원에 대한 공동 조사 및 공모사업 추진, 지역 도예가와의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세계유산 원정탐험대’ 출동

유치원 등서 ‘2025 세계유산축전-고창고인돌, 갯벌’ 미래세대에 소개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위원장 박현규)가 ‘세계유산 원정탐험대’와 함께 관내 유치원에서 2025 세계유산축전-고창고인돌, 갯벌을 미래세대에 소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창세계유산 원정탐험대’는 이날 중 전북·광주권 어린이집과 유치원 10개소를 찾아 어린이들에게 고창 고인돌과 갯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을 하게 된다. 축전에 어린이집 견학이나 가족 단위 방문 등을 위한 사전홍보 프로그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도 이날 유치원생들과 고인돌 쌓기, 갯벌 생물 낚시 체험, 스토리텔링 인형극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했다.

또 고창 세계유산의 이야기, 세계유산축전에 관한 설명 및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 등을 쉽고 재미있게 담아 제작된 홍보책자도 전달했다.

행사 중 촬영된 응원 사진과 영상은 축전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공개돼 축전 참여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 편



집된 영상은 행사 후 각 유치원에 송부, 홍보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자연과 공존, 인류의 영원한 시간! 갯벌과 고인돌”을 주제로 고창 고인돌 유적과 갯벌 일원에서 세계유산축전이 열린다. 축전 기간 개막식과 특별기획전, 유적 투어, 국제학술대회, 환경 캠페인, 고인돌 세움학교 등 고창민의 특색 있는 문화·환경 체험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세계유산 원정탐험대’를 통해 어린이들이 고창의 세계유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전북 K-POP 아카데미 연계 K-컬처 성료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전북 K-POP 아카데미에 참가한 국내외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부안 일원에서 K-컬처 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부안청자박물관 도자기 만들기, 천연고찰 내소사 탐방, 변산비치림 무대공연, 부안영상테마파크 및 출판만 노을빛 정원 관람 등 부안의 다채로운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변산해수욕장에서 열린 변산비치림 무대에서는 참가자들이 아카데미에서 배운 K-POP 댄스를 선보여 축제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어 출판만 노을빛 정원에서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소더퍼’ 챌린지 영상을 촬영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해당 챌린지 영상은 참가자들의 SNS를 통해 전 세계에 부안을 홍보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광복절 ‘범군민 태극기 달기 운동’

전북 고창군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가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범군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진행한다

태극기 달기는 8월15일 광복절 당일을 중심으로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 단체, 주요 도로변 등 전 군민이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 청사는 24시간 △각

급 학교와 군부대 주 게양대는 낮 동안 △가정·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고창군은 13~15일 군 전역 주요 노선에 가로기 200여 개를 게양해 광복절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단독주택은 대문에, 공동주택은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실내는 전면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 또는 중앙에, 차량은 전면 기준 왼쪽에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안내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